

실속 재테크

소액예금 고금리 상품

“푼 돈이 큰 돈 되네” 소액 재테크 쏠쏠

은행들 4%대 이자 지급...‘개미고객’ 환영

매월 급여통장에 수십만원의 예금이 남아도 이자를 볼릴 생각을 하는 이는 드물다. 잔고를 푼돈이라 생각해 그냥 놔두는 경우가 적잖기 때문이다. 이 돈에 붙는 예금은 보통 0.1%대다. 그러나 재테크의 기본은 소액도 쉽게 보지 않는 것이다. 최근 은행들이 푼돈에도 4%대 고금리를 주는 통장을 내놓고 있다. 소액에 대해서도 높은 이자를 주는 통장, 일정 기간 이상 예치한 금액에 고금리를 주는 통장 등이 선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은행의 ‘우리 신세대통장’은 이 통장을 결제계좌로 해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쓸 경우 1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연 4.1%의 금리를 지급한다. 1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연 0.7%의 금리를 준다. 휴대전화 요금을 이 통장에서 자동이체할 경우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가 면제된다. 가입 대상은 만 18~30세 고객이다.

국민은행의 ‘KB 스타트통장’은 계좌 간 자동이체,공과금 자동납부,KB 카드 이용실적 등이 있는 경우 1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연 4.0%, 1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연 0.1%의 이자를 준다. 이 상품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겨냥해 만들었기 때문에 만 18~35세인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 한국씨티은행의 ‘참뚝뚝한 에이플러스 통장’은 31일 이상 예치한 금액에 대해 연 3.5%의 이자를 지급한다. 예치기간이 30일 이하인 금액에 대해서는 연 0.1%의 이자만 준다. 건당 90만원 이상의 금액이 월 1회 이상 입금되거나 전월 평균이 90만원 이상인 경우 출금이나 이체 수수료가 횡수에 상관없이 면제된다. 기업은행의 ‘IBK급여통장’은 잔액 구간을 설정해 차등화된 금리를 받을 수 있다. SC제일은행의 ‘두드림통장’ 역시

잔액 구간을 50만원 이하로 설정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 연 3.2%의 이자를 받고 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로 설정하면 연 1.7%, 5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로 설정하면 연 2.4%의 금리를 각각 적용받는다. 잔액 구간 이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연 0.1%의 이자를 준다. 잔액 설정 기준은 월 1회에 한해 바꿀 수 있다. 월급을 자동이체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 기업은행 ‘IBK핸드폰결제통장’은 휴대전화 요금 자동이체시 100만원 이하에 대해 연 3.2%의 금리를 준다. 이 상품은 만 40세 이하만 가입 가능하다. 신한은행의 ‘레디고 통장’은 만 18~30세의 젊은이들이 가입할 경우 100만원까지 연 3.2%의 금리를 준다. 1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는 연 0.1%의 이자를 지급한다. SC제일은행의 ‘두드림통장’ 역시

소액 고금리 상품

Table with 4 columns: 은행, 이름, 최고 금리, 조건. Lists various banks and their low-amount high-interest products.

입금 기간별로 금리를 차등화해 지급하는 상품이다. 31일 이상 예치한 자금에 대해서는 연 3.6%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예치기간이 30일 이하인 금액에 대해서는 연 0.01%의 금리를 적용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개점 12주년 맞는 롯데백화점 광주점 고 광 후 점장

“가족과 함께 찾는 문화사랑방 만들겠다”

“지역민의 사랑을 받는 지역친화기업으로 새로운 유통문화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오는 18일 개점 12주년을 맞는 롯데백화점 광주점을 이끌고 있는 고광후 점장은 “고객중심 경영과 차별화된 지역 공헌 사업을 통해 지역민과 함께 공감하는 광주의 명품 백화점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점장은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고객 욕구를 파악해 최상의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어떠한 투자와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며 “다른 유통업체와 차별화를 계속해 가족과 함께 찾아 즐길 수 있는 문화 사랑방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역밀착 경영으로 新 유통문화 선도

문화예술 공연, 인문학 강좌, 명사 초청 특강 등 지역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준 높은 문화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또 백화점은 지역 친화적인 기업이 되고자 지역사랑 캠페인을 비롯해, 장학·봉사·문화·지역업체 육성 사업 등 지역 공헌사업 다각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1998년 문을 연 이후부터 불우이웃돕기, 무등산보호 환경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으며 최근에는 ▲광주·전남 인재육성 기금 마

련 캠페인 ▲기아타이어즈 공익후원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하는 그린 마케팅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우주중소기업 상품전 등 지역 친화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아이누리 좋은 세상 만들기 협약식’을 갖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 운동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관련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개점 12주년을 기념해 21일까지 롯데카드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비엔날레 입장권을 증정하고, 개점일인 18일에는 1층 정문에서 국화장원을 만들고 ‘행운의 복불복 경품대추제’를 진행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골목상권 유린 말라”

15일 ‘북구대형마트입점저지대책위’와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가 북구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지난 9일 북구 삼각동 인근 대형마트 입점허가와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북구청 패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굴비 1마리 24만원 “없어서 못 팔아요”

“光銀 지역자본 인수 당연”

광주상의 ‘상공리포’ 발간

백화점 명품 선물세트 불티

120만원짜리 굴비세트 등 50만원 이상의 고가 선물세트가 추석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다. 15일 유통업체에 따르면 광주신세계백화점이 한정세트로 준비한 120만원 짜리 ‘왕특대굴비’ 선물세트가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준비물량의 90% 가량 팔려 품절을 앞두고 있다. 1세트에 굴비 5마리가 들어있어 1마리당 24만원 짜리 고가의 선물이지만 백화점에서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또 70만원대 ‘명품 목장 한우 세트’도 하루 평균 2개씩 꾸준히 팔리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50만원 이상 초고가 선물세트가 지난해보다 같은 기간보다 28%나 잘 팔리고 있다. 주문제작 되는 50만원 이상의 정육세트 매출도 전년보다 37.5%나 늘었다. 특히 100만원 짜리 ‘구가네굴비세트’를 비롯해 60만원대의 ‘한우진미세트’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상반기 좋은 실적을 거둔 기업들이 고가의

선물세트 구입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에 고가의 선물들이 잘 팔리고 있다”고 말했다. 비교적 저가의 선물세트를 취급하는 대형마트에서도 올해에는 고가 상품의 매출이 크게 늘었다. 이마트가 올해 최고급 한우 선물세트로 준비한 ‘명품한우 마블링 NO.9’는 50만원의 고가임에도 준비물량 100세트 중에서 이미 90세트가 팔렸다. 또 이마트가 올해 처음으로 5세트 준비한 99만원짜리 ‘황제굴비’도 3세트가 예약 주문으로 팔렸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광주은행이 지역자본에 의해 인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광주상공회의소는 15일 ‘왜 광주은행을 지역자본이 인수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연구보고서 ‘상공리포’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역자본이 향토은행으로 설립한 광주은행이 외환위기로 우리금융지주로 편입돼 지역에서 주도권을 상실했지만 흑자경영의 우량은행으로 탈바꿈했기 때문에 향토은행으로 부활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은행을 지역자본으로 인수해 명실상부한 광주·전남 은행으로 만들려면 소유구조를 철저히 분산시키고 감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며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대주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신보 보증잔액 4000억 넘었다

광주신보보증재단(이사장 김재욱·이하 광주신보)은 15일 “광주지역 소상공인, 영자영업자에 지원한 신용보증잔액이 4000억원을 넘어섰

다”고 밝혔다. 수혜업체는 3만 곳을 웃돈다. 지난 1996년 7월 업무를 시작한 광주신보는 현재까지 누적금액으로 4

만240개 업체에 모두 8810억원의 보증지원을 했다. 올해 8월 말 현재 신용보증공공금액도 1450억원에 달한다. 한편, 광주신보는 ‘햇살론’ 보증지원을 강화해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인구 4887만명에 이동통신 가입자는 5005만명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수가 5000만명을 넘어섰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수가 5005만명을 기록, 본격적인 1인 다수 휴대용 통신기기 보유 시대의 도래를 알렸다.

이와 관련, 통계청이 추산한 올해 인구 4887만50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이동통신 서비스 보급률은 102.4%에 달한다. 가입자 5000만명 달성은 지난 1984년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이 최초로 이동 서비스를 개시

한 지 26년이며, 2006년 가입자 4000만명 돌파 이래 5년만이다. 지난 6월 가트너 자료에 의거할 때 올해말 예상되는 인구수 대비 국내 이동전화 보급률은 103.9%로, 미국(95.0%)과 일본(87.6%)을 능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Jindo Mall featuring a mouse cursor icon, the text 'Jindo Mall을 Click 하세요 | www.jindomall.com |', and a large banner for '청정지역 진도군에서 생산된 고품 농·수산물' (High-quality agricultural and aquatic products produced in the clean area of Jindo-gun). The banner includes images of a bottle of Jindo wine, various fresh vegetables, and a scenic view of the Jindo coastline. The Jindo logo and '진도군' (Jindo-gun) are also present.